

"자본주의는 기아와 빈곤에 책임이 있다"

라이너 지텔만 / 2023-07-21

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전에, 세계 대부분 사람은 극도의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. 예를 들어, 1820년에는, 세계 인구의 약 90퍼센트가 절대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. 오늘날, 그 수치는 10퍼센트 미만이다.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: 최근 수십 년간 빈곤 감소는 인간 역사의 어떤 이전 기간에서도 필적할 수 없는 속도로 빨라졌다. 1981년에, 절대 빈곤율은 42.7퍼센트였다; 2000년까지는, 그것은 27.8퍼센트로 떨어졌고, 2021년에는 그것은 10퍼센트 미만이었다.

수십 년간 지속했던 이 추세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. 빈곤이 지난 두 해에 걸쳐 다시 오른 점은 사실이다. 그러나 이것은 대개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병의 결과인데, 후자는 빈곤이 이미 상대적으로 높았던 나라들에서의 상황을 악화시켰다.

빈곤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, 우리는 역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. 많은 사람은 자본주의가 세계적 빈곤과 아사([h] [h])의 근본 원인이라고 믿는다. 그들은 전([h] [h]) 자본주의 시대에 관해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것, 《1820-1895년 영국 노동 계급의 상태(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1820-1895)》를 포함하는 고전 작품들에 의해 형성된 완전히 비현실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. 엥겔스는 초기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 상황을 가장 격렬한 용어들로 매도했고, 기계 노동과 자본주의가 나타나서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 방식을 파괴하기 전 가내 노동자들의 목가적 그림을 그렸다:

“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런대로 안락한 존재 양식을 통하여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냈고, 아주 경건하고 성실하게 올바르게 평화로운 생활을 했다;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 처지는 자기들의 상속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. 그들은 너무 많이 일할 필요가 없었다; 그들은 자기들이 하기로 선택한 것만 했지만,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벌었다. 그들은 정원이나 들판에서 건강에 좋은 일을, 그 자체, 자기들에게 기본 전환인 일을 할 여가를 가지고 있었고, 그들은 그 밖에도 자기들 이웃들의 오락들과 게임들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, 이 모든 게임-볼링, 크리켓, 축구 등-은 그들의 육체적 건강과 활력에 이바지했다. 그들은, 대개, 튼튼하고,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, 그들의 체격에서 자기들의 농민 이웃들의 그것과 차이가 거의 혹은 전혀 발견될 수 없었다. 그들의 아이들은 신선한 시골 공기 속에서 자랐고, 만약 그들이 일하고 있는 자기 부모를 도울 수 있다면, 그것은 단지 가끔일 뿐이었다; 반면에 그들에게 여덟이나 열두 시간 일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.”

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이전의 생활에 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은 이런 그리고 비슷한 낭만적인 묘사들로 말미암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었다. 그들은 자본주의 이전 생활이 현금([h] [h])의 시골 여행을 닮았다고 상상한다. 그래서, 1820년 이전 여러 해와 여러 세기에서의 전([h] [h]) 자본주의 시대를 더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기로 하자.

“18세기의 몸집이 작은 근로자들은,” 노벨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(Angus Deaton)은 자기의 책 《대각성(The Great Awakening)》에서 쓴다, “효과적으로 영양 함정에 갇혔다; 그들이 아주 육체적으로 허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벌 수 없었고, 일이 없어서, 그들이 식품을 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먹을 수 없었다.”

어떤 사람들은 삶이 아주 더 느렸던 조화로운 전([h] [h]) 자본주의 상황에 관해 열심히 이야기하지만, 이 굶픔은 주로 영속하는 영양실조에 기인하는 육체적 허약의 결과였다. 200년 전에는, 영국과 프랑스 주민들의 약 20퍼센트가 전혀 일할 수 없었는데, 그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허약했다는 단지 그 이유뿐이었다.

지난 100년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아([h] [h])들은 사회주의하에서 일어났다. 볼셰비키 혁명 후, 1921/22년의 러시아 기아는, 1927년의 《소비에트 대백과사전(Great Soviet Encyclopaedia)》에서의 공식적 수치들에 따르면, 5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. 최고 추정치들은 기아로부터의 사망자 수를 천만-천4백만으로 어림잡는다. 단지 십 년만 지나서, 이오시프 스탈린의 사회주의 농업 집단화와 “부농 청산(liquidation of the kulaks)”은 다음 대기근을 일으켰는데, 이것은 6백만 명과 8백만 명 사이를 죽였다. 그리고 마오의 “대약진(Great Leap Forward)” (1958-1962),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실험은 중국에서 4천5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.

“기아(famine)”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,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첫 번째 것은 아프리카다. 그러나 20세기에서 모든 기아 희생자의 80퍼센트는 중국과 소련에서 죽었다.

사람들이 “기아와 빈곤”을 생각할 때 그들이 20세기의 가장 큰 기아들에 실제로 책임이 있었던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생각한다는 점은 전형적인 오해이다.

라이너 지텔만(Rainer Zitelmann)은 《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》의 저자이다:

<https://product.kyobobook.co.kr/detail/S000201471405>

번역: 황수연(전 경성대 교수)